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저는 중학생입니다. 음란사이트를 자주 들어가서 그런지 여자하고 섹스를 하는 상상을 계속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음란사이트를 보면서도 그것을 부모님에게 들키까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찌죠. 죽을까요?

정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사랑이 가득하고 인간의 향기가 물씬 넘치는 맛지고 훌륭한 사나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Q 불혹의 나이에 불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법사가 되려 했지만 학교에 와서 스님들도 보고 공부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출가생활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수행 하기 좋은 환경은 조계종에 갖춰져 있기에 그 쪽으로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 처자식과 주위 사람들과 벗지 못할 상처를 주고 나이에 조계종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A 만학도시군요. 늦은 나이에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동기들과

A 심각하게 고민이 되겠지만, 성장의 한 과정입니다. 여자하고 섹스 하는 상상도, 청소년기의 소년애 갖는 당연한 호기심이고 건강한 성장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음란사이트에서 보이는 섹스는 어떠신가요. 전혀 아름답지 않고 이상하지요? 대개의 음란물에 나타난 영상은 동물적인 암수의 교미만을 클로즈업 해왔

중학생인데 음란사이트에서 못 벗어나겠어요
성장의 한 과정이나 내면부터 성숙시켜야

거든요. 일반 청소년이 음란사이트를 접하고 나면 당연히 섹스와 관련된 생각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이해하고 나면 망상을 떨칠 수 있습니다. 섹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정신적인 교감의 일부로서 행해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체되고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면의 성숙부터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오는 미숙한 사랑은 건강하게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습니다. 인간의 결절 중 하나는 정신세계의 성숙보다 육체가 먼저 성숙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어른들의 우려도 바로 그런 점 때문입니다. 아직 사고력이나 판단력 등 정신은 물론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자극적이고 조작된 음란물로 인해 그릇된 사고와 가치관을 갖게 되고, 나아가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비하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내면이 충분히 갖추어지면 그런 것을 본다면 '아! 인간이 충분히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채 동물적인 욕망으로만 산다면, 이렇게 혐오스러울 수도 있겠구나!'하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자극적이던 장면도 그저 시큰둥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스스로 옳고 그름과 아름답고 추함의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 관계, 학업 및 가정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 경제를 비롯한 사회적 위치도 고민이 되겠습니다. 출가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무슨 이유로 출가를 하고 싶으신지 그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가에는 몸 출가, 마음 출가, 호심 출가, 마음 다하는 출가가 있습니다. 세속에 살면서도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는 출가가 있고, 스님이 되어서도 세속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둘 다 하는 출가가 있습니다. 출가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걸음을 어떻게 떼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할시위가 팽팽할 때 화살이 피여져 적중하는 것처럼, 출가를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때 성불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됩니다. 몸과 마음이 다 출가하기 위해서는 분명 내담자님의 동기 및 선택도 중요하지만,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충분히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기를 충분히 고민해 보십시오. 이후 가족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 대화를 시도하고 결정하시어도 늦지 않습니다.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팀 아하박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환자들 돌보면 저절로 기도 돼

자비법당 탐방 경찰병원 법당 한마음봉사회

백의(白衣)를 곱게 차려입은 목련이 아름답다. 부처님 오신날을 한 달여 앞둔 4월 7일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국립경찰병원 법당을 찾았다.

국립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혜광 스님(서울 참나선원장)과 무관 스님은 한마음봉사회(회장 변윤연)와 1991년부터 20여 년간 기적과 절망 사이에서 숨 죽인 채 삶의 벼랑 끝에 선 환자들에게 자비의 손을 내밀고 있다.

매주 월·수·금요일은 한마음봉사회의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다. 한마음봉사회는 병원 곳곳에서 불교 정기간행물 및 도서 관리, 도서대여, 수행상담, 금요 정기법회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7일 오전도 여느 봉사일과 마찬가지로 혜광 스님과 봉사자들이 경찰병원 5층에 들어섰다. 입원실에는 많은 전·의경 환자들이 있었다.

577호 병실에서는 서울 제1기동단 15중대 소속 강형욱(21) 의경이 한마음봉사회가 준비한 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강 의경은 <차마고도>를 살펴보고 "불자 집안은 아니지만 불교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라'는 가르침이 참 와 닿더라고요"라고 말했다. 불교의 가르침을 흠모하는 강형욱 의경의 팔뚝에는 단주가 채워 있었다.

혜광 스님은 "기특하네. 불교 법당에도 자주 오렴. 어디서 낯길 기원하게"라며 강 의경의 등을 쓰다듬었다. 무관 스님은 "병원 생활이 무료한 환자들에게 불교 서적 등을 대여해 주면서 환자들을 포교하고 있다. 불교계 출판사의 책 보기가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말했다. 경찰병원 법당에서는 불교신행연구원의 법보시의 한마음봉사회 회원들의 회비로 책을 구입하고 있다.

1993년 창립된 한마음봉사회는 2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회원들은 작은 힘이지만 사회에 보태 큰 희망을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운 이들이다.

20여 년째 한마음봉사를 이끌고 있는 변윤연 회장은 처음부터 불자는 아니었다. 송파구의 한 동사무소 봉사회에서 일하던 변 회장은 경찰병원으로 봉사 활동을 하러왔다가 불연(佛緣)을 맺었다. 혜광 스님의 가르침이 컸다. 1년 남짓 동사무소 봉사회 활동을 하던 변윤연 회장은 아예 경찰병원 법당에 한마음봉사를 꾸리고 지금까지 활동 중이다.

변 회장 밑에 송현수, 신진자, 이영순, 임분순, 정진옥 보살 등 한마음봉사회원의 신심도 크다. 회원들은 "무엇을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부처님 법에 다가서면서 스님들을 뵈고, 내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며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마음봉사회의 뒤에는 병원 포교에 전력 중인 혜광·무관 스님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다. 스님들은 봉사회 조직·운영을 도우며 포교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병원직원 불자회도 이끄는 무관 스님은 일과 수행의



경찰병원 법당의 한마음봉사회는 매주 월·수·금요일에 봉사를 하고 있다. 수요일은 도서 대여 봉사가 있는 날이다. 한마음봉사회 회원들과 혜광 스님이 입원 중인 전·의경을 찾아가 책을 빌려주고 있다. 혜광 스님은 준비한 단주를 건네며 환자를 위로했다.

1993년 창립 한마음봉사회 불서 대여 등 법보시 봉사 혜광·무관 스님 20년 째 경찰병원 법당서 포교 전력



4월 7일 아침 한마음봉사회 회원들이 환자들에게 대여해 줄 책을 정리하고 있다.

일치를 언제나 강조한다. 2009년부터 매주 금요일 <법화경> 등을 강의하고 있다. 병원직원 불자회 법회에는 10여 명 병원직원 불자가 참여하고 있다.

무관 스님은 "가끔 시내에 나가면 아는 체를 하는 전·의경들이 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며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병원 법당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처'이다. 아픈 환자들을 보면 일부러 마음먹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가 된다"고 말했다.

혜광·무관 스님, 한마음봉사회의 가장 큰 보람은 아픈 환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때라고 한다.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이뤘던 한 환자가 스님의 방문에 "덕분에 마음이 편해 졌어요"라며 단상에 드는 경우도 있었다. 한 할머니 환자는 혜광 스님만 오면 못 떠나게 하려고 자신의 침대 옆에 꼭 있으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혜광 스님은 "살과 죽음이 틀어박혀 있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편하게 눈을 감는다"며 "아픈 사람, 고통 받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간절한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02)430-2555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쳐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 귀장술12신공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12신공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공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공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12신공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厄運)시록
- * 집안 동토귀신(東土鬼)알아내는 법
- * 자녀(子)액운(厄)차귀탈(差)정단법
- * 취직(求)시험(試)·승진(進)시험(試)의 합격(合)판단법
- * 선거(選)후보(後)당선(當)비율(率)하는 여부(有)판단법
- * 관청(官)·공무원(公)빈자리(빈)입관(入)가능(能)여부
- * 소송(訴)·판재사(判)의 승패(勝)판단법
- * 보고(報)싶은(思)사람(人), 기다리(待)는(는) 사람(人) 소식(息)가능(能)일
- * 가출(家)자가(者) 언제(時)쯤(時) 집에(家) 돌아(來)올(올)까?
- * 잃어버린(失) 분실물(物) 위치(位) 추경(追)법
- * 도주(逃)·도망(亡)한(한) 사람(人)이 어느(哪)쪽으로(向) 갔을(去)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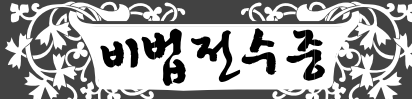
- * 12신공 숨어있는 조상(宗)원귀(元)법
- * 12신공에 암장(暗)된(된) 악령(惡)귀신
- * 귀장술(歸)歸藏(藏)術(術)로 보는 前生(前)투시(透)법
- * 前生(前)의 夫(夫)婦(婦)인연(姻) 원집(元)살이(生)에 現生(現)에 미치는(及) 현상(現)상
- * 귀장술(歸)歸藏(藏)術(術)로 뽑은(選) 빙의(氷)착귀(着)귀신(鬼)신론(論)
- * 귀장술(歸)歸藏(藏)術(術)로 뽑은(選) 사후(死)後(後)환생(換)생(生) 귀신(鬼)착해(着)론(論)
- * 산소(山)·무덤(墓)에 관해(關)서(서) [음택(陰)법]
- * 무덤(墓)안(內) 유골(遺)의 현재(現)상태(態) 알아(知)내는(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02) 3667-4446
010-3813-4443